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①

태장계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의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지난 호에서는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의 남방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은 서방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의

이 관자재보살은 무애자재(無碍自在)하게 일체(一切)를

그래서 이 보살을 일러 '중생구제 구구난(衆生救濟 救苦救難) 보살', '구세자(救世者) 보살'이라고도 한다.



중생구제를 위하여 화현하신 보살...

무량수여래의 인위(因位)로써 깨달음의 증득을 상징

나라의 현장(玄裝)이 번역한 것을 신역(新譯)이라 한다.

하여 왼쪽 가슴 앞에 놓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오른손은

(자료정리 : 법장원)

아제 아제 바라아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며 - 공업중생

세월은 나이에 재촉으로 빨리 간다고 한다. '미군장갑차에

전쟁과 증오의 모든 것은 자신의 업보때문 새해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살기를

가거나 단체들이 모여 '전쟁 반대 결기시위'를 벌이거나 '전

이제 환경 친화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은 점점 더 실 자

전쟁과 증오의 모든 것은 자신의 업보때문 새해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살기를

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공업중생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달의 명상

"밥 잘고 썰 뿌리는 일로부터 먹고 입는 데 이르기까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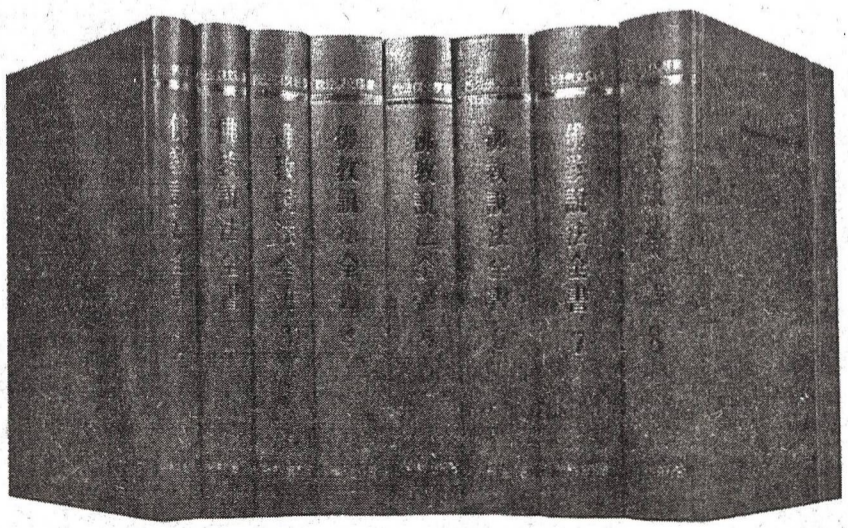
저야 합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이고 쌓여서 우리에게 음식을

은혜를 소중히 여기라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의 소중함을 감각한 채 살아가고 있

불교설법전서 8권 발간!

지난 14년 동안 스님들과 포교사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바로 그 책, 불교설법전서!



- 4x6배판 1권(500쪽) 3만원 2권(593쪽) 4만원 3권(610쪽) 4만원 4권(796쪽) 4만원 5권(718쪽) 4만원 6권(800쪽) 5만원 7권(900쪽) 5만원 8권(790쪽) 5만원

창립14주년 기념 특별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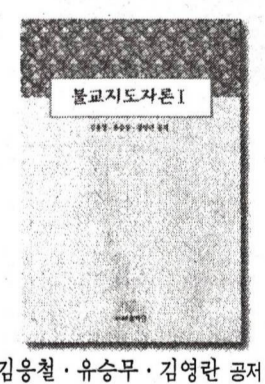


행사 · 교리 · 불사 · 신행 · 시사 등 주제별로 구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보신문사 · 도서출판 승바람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403호 Tel. (02)720-0824 Fax. (02)722-8760 E-mail: sujpub@hanane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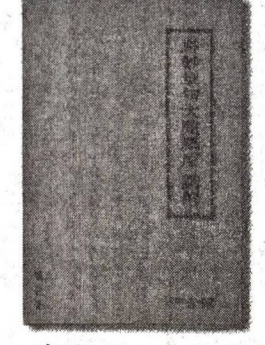
불교지도자의 역할과 그 수행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지침서

불교지도자론 I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는 불교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을 키워도록 하는 지침서. 국제신문 이훈근 기자 이상적 불교지도자상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 최초의 체계적 연구서. 현대불교 여성영 기자 한국불교의 지도자상과 지도력 배양을 논한 최초의 책. 만불신문 신회진 기자 이 책은 불교리더십의 이론을 제공하면서, 포교현장의 지도자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있다. 불교아카데미 윤현수 이사장

불자들이 수치 독송에는 신묘장구대다라니, 생명의 언어로 다시 태어났다!



임근동 선생님이 우리말로 풀이하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위우고 싶노라.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은 신관세음보살님이 고난에 쫓겨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시는 듯한 느낌이 든다.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본락 스님 저자는 "산스크리트어로 지은 진언을 우리말로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불립문자"라는 말대로 문자 위에 서는 것을 경계해야 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조연현 기자

신묘장구대다라니 강해

풍경소리

사람의 마음

어느날 마당에서 토끼에게 풀을 먹이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토끼는 어디를 잡아야 꼼짝 못하지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야 귀를 잡으면 되지.”
 그때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를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고양이는 어디를 잡아야지요?”
 “목덜미를 잡으면 되지.”
 이번에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어디를 잡아야겠니?”
 “목덜미를요 아니, 팔을요 아니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자라서 엄마 나이만한 어른이 되었
 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목덜미를 잡을 수도, 팔을 잡을 수도 없고
 오직 마음을 잡아야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왜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도 깨
 달았습니다.

- 손광성/수필가

손님을 신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얼마 동안에 있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자네는 아직 도를 모른다.”
 다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밥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자네는 아직 도를 모른다.”
 또 다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숨 쉬는 사이에 있습니다.”
 “자네는 도를 아는구나.”

- 『사십이장경』중에서

하루를 살 듯이

일을 시작함에
 평생동안 할 일이라 생각하면
 어렵고 지겹게 느껴지는 것도
 하루만 하려면
 쉽고 재미있습니다.
 슬프고 괴로워도
 오늘 하루만이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백년도 하루의 쌓임이요,
 천년도 오늘의 다음날이니
 하루를 살 듯
 천년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행복과 불행

장밋빛 꿈을 안고 한 청년이
 〈행복〉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신혼부부의 방에
 어느 낯선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남의 방에 들어왔소.”
 “저는〈불행〉이라는 여자입니다.
 〈행복〉이라는 여자와는 한몸이라서
 일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잔소리 말고 빨리 나가시오.”
 그러자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방을 나간다면 〈행복〉이라는
 여자도 함께 나가야만 합니다.”

- 김원각/시인

〈자료제공 :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나도 한마디

부처님의 공덕에 감사하며...

세월의 흐름이란 참 빠른 것 같다. 옛그제까지만 해도 새해불공을 하느라 분주하게 절을 내집처럼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종일 불공한 것 같은데 벌써 1달이 지나버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가겠지! 이렇게 새해불공으로 수행한 지도 벌써 몇 해가 되어 버린 것 같다. 세월의 흐름속에 나의 머리카락도 어느덧 하얀 색으로 변하고 옴니반메홍을 염송한 지도 몇 십년이 되어 이제 옴니반메홍을 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서는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가득차 있다.
 이렇게 옴니반메홍을 하면서 많은 공덕을 입었다. 처음 입교하였을 때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십일 회사도 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가정형편도 남부럽지 않게 넉넉하게 되었고 자녀들도 모두 건강하게 각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생활에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공덕이라 생각하고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뿐이며 지금도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불공하고 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은 항상 남의 잘못만 보이고, 남의 허물만 보이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부처님의 법을 믿고 남을 이해하고 남의 허물대신 본받을 점을 보며 항상 집착하지 않고 탐욕없이 부처님의 법

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나의 생활도 이렇게 변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부처님을 생각하니 무엇보다도 옴니반메홍의 공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대단해서 이제 죽어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여하이 없으며 앞으로 죽는 날까지 옴니 반메홍을 염송하며 생활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해 준 스승님과 주위의 가족, 법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김 금자)

나도 한마디는 총지종보 독자의 공간입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이나 총지종보, 총지종 종단에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총지종보사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지종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562- 1080 팩스 : 02)562-1082
 이메일 : kyjyja@hanmail.net



불교의 3과의 법문

온(蘊)	—색	수	상	행	식	(오온)	
처(處)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
	+ 색	+ 성	+ 향	+ 미	+ 촉	+ 법	(육경)
계(界)	—안	이	비	설	신	의	(육식)
	식	식	식	식	식	식	

12처

18계



하나한방 병원

대체의학점목 협진

하나의원

● **한방 제1과 : 병원장**
 중풍, 탈모, 성인병, 심장질환, 만성피로, 두통/어지러움, 불면/수면장애, 치매, 환청

● **한방 제2과**
 남성, 중풍, 수험생, 성장, 당뇨, 알러지, 간기능, 남·여 불임

● **한방 제3과**
 비만, 성장, 수험생, 부인병, 갱년기, 알러지, 만성변비, 피부미용, 소아

● **한방 제5과/침구과**
 통증/재활, 척추, 관절,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내과질환

● **신경정신과**
 대체의학(아로마테라피 등) 스트레스, 만성피로, 탈모, 불면/수면장애, 치매

● **가정의학 1과**
 비만, 만성변비, 일반질환, 일반검진, 종합검진

● **가정의학 2과**
 갱년기 호르몬, 알러지, 비염, 소아과, 종합검진

● **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 보철, 구강외과

◎한방물리요법실 ◎스포츠의학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한·양방 건강검진센터 가동 중!!
 ◎직장인 및 학생을 위한 야간진료 실시 중!!
 (비만, 성장, 수험생 클리닉)

교통편

· 버스④ : 33, 212
 버스⑥ : 일반/21, 63-1, 65, 69, 33, 5, 6-2, 555-2, 571-1
 · 지하철 : 2호선 삼성역 하차 ⑥번 출구

동·도의학 협진

강남하나한방병원·의원
 Hana East-West Integrative Medical Center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6-2
 TEL:(02)569-1011~4
 FAX:(02)563-5577

〈불교 총지종 자매결연 지정병원〉



사진으로 보는 2003년



법황사, 흥국사 사원신축으로 사원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밀교사상사개론 출판과 수성 대종사 종령추대로 교상과 사상을 확립한 한 해...



경로법회

"지비행의 실천으로 보살도를 이루자"라는 주제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림원 유스호텔에서 전국 65세이상 어르신들 600여명을 모시고 불자 연예인 백남봉씨를 초청하여 흥겨운 한마당을 마련하여 모처럼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으로 가득하였다.



수성 대종사 종령 추대법회

11월 18일 제8대 수성 종령 추대법회를 교계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들을 모시고 봉행하였다. 수성 종령은 "원정 종조님의 결과정진법을 계승하고 재내중의 수행으로 스승들은 더욱더 철저한 계행과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교도들은 초발심의 자세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수행생활을 하라."고 법을 설하였다.



청소년수련대회

"전통을 배워 미래를 열자"라는 주제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북 안동 일대에서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예체험, 화회탈춤배우기, 전통한지 체험, 안동 하회마을 관광 등의 프로그램으로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불교의 자비정신과 근부교리와 총지종의 수행법 및 한국전통의 우수성을 고취시켰다.



종립동해중학교 졸업식

종립 동해중학교 졸업식에서 당시 수성 동해중학교 이사장이 성적우수자 학생에게 상장과상품을 수여하고, 총지종에서는 불교반 학생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진취적인 기성과 자신의 가슴속에 간직한 소중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재미년 한 해가 지나고 갑신년 한해가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미년 한 해 동안 대외적으로 이라크전쟁, 각종테러, 경제한파로 인해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사라지게 하였고, 불교계에서는 청화, 정대, 월하, 서용스님 등 대덕스님들이 잇달아 열반하고, 종단내적으로 특정 대종사님의 열반과 수성 대종사의 종령추대 등 슬프고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슬픈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기쁜 일만 고이고이 간직한 채 갑신년 새해에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교도가정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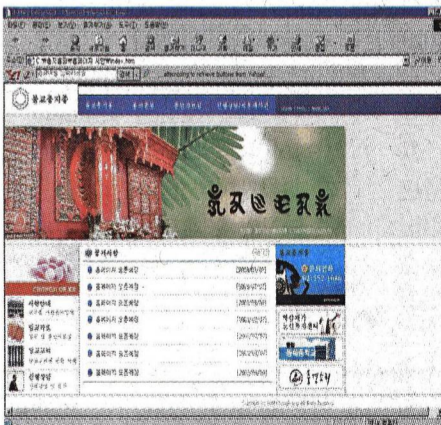
하반기 49일 불공회향 방생법회

하반기 49일 불공회향 방생법회를 7월 16일 총지종의 모든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부산경남교구는 경남 함양군 농월정에서, 대구경북교구는 합천군 용문정에서 가졌다. 방생법회는 중생을 애민하게 생각하는 마음속에 보살의 지혜가 자재하고 좋은 일을 기쁘게 행하면 반드시 좋은 업이 생기고 한 마리의 물고기를 놓아 주었을 때 꼬리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업장을 방생지비행으로 녹일 수 있어야 한다.



제7대 종령 특정 대종사 임직

원정 대성사님과 함께 총지종을 창종하시고 종단의 종풍과 기풍을 세우며 종단의 법맥을 이어오시고, "화합하고 화평하여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말며 참되고 진실한 말을 하고 항상 남의 잘못을 보지말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선행을 하라."고 강조하시던 특정 대종사님께서 5월 4일 기로원에서 임직하여 종단내 스승 및 교도들의 애도속에 특정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하는 고결시를 가졌다.



총지종 홈페이지 개편

8월 말부터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는 정보화시대에서 온라인상의 포교를 활성화하고 총지종의 종지 및 수행체계, 밀교에 대한 기초이론, 수행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신속성과 정보전달의 편이성, 권리의 편리성을 주요 점으로 총지종에 대한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고, 온라인상으로 수행상담을 하여 중생 제도를 위한 포교의 제일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밀교사상사개론』 출판

밀교사상사개론이 3년여 동안 동국대학교 서윤길 교수와 정태혁 교수 등 밀교의 권위자들과 총지종 법장원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전국 스승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6월 23일 통리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밀교사상사개론은 밀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서로서 밀교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밀교의 의미를 부각시켜 밀교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었다.



광주 법황사, 전주 흥국사 신축 완공

광주 법황사는 1월말 남구 구동에 368평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웅장하고 장엄하게 신축하였으며, 서원당 내부에 담장과 만다라를 배치하였다. 전주 흥국사는 4월 완산구 효자동에 307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상2층으로 신축하여 호남지역 밀법포교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었다.